

오늘의 기사관

제 8회 한·중 포럼(정보통신) 오전 10시30분 영암군 호텔 현대 컨벤션홀

행사 (31일)
▶제 8회 한·중 포럼(정보통신)=오전 10시30분 영암군 호텔 현대 컨벤션홀. '한·중 IT산업 공동발전방향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김재진 전남대 경영대 교수가 '국제협력력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홍성원 전남대 전략산업기획단장·조병록 순천대 전자공학과 교수·강기선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 11월1일까지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서부사무소 조도분소 개소식=낮 12시30분 진도군 조도 어류포항.
▶선진 지방자치 지역포럼=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오후 5시30분 광주서구문화센터 소강당. 광주시 서구 음식점 3천 292개소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업소가 참여.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오후 3시30분 광주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11월 1일>
▶제 41회 광주 시민의 날 기념 민주주의 종 타종식=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민주종각. 기념식 오전 11시 시청 야외음악당.
▶제 409주년 명량대첩기념 2006 진도아리랑 축제=오전 11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남도민요 전국경향대회·내고장 자랑대회(2일)·제 9회 세계평화제(4일)·평화기원제, 혼 건진·혼 달팔 공연, 상여놀이 경연 등·제 15회 한국진도개품경회(4일)·제 20회 논배미축제(4일·추수가 끝난 논에서 호박이 고달리·갯공차기 등)등이 개최. 4일까지.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 창립식=오후 3시 광주YMCA 백제실.

▶제 33회 남도문화제=전야제 오후 7시30분 목포시 평화광장. 2~3일 북포제육관. 21개 시·군 21개팀이 농악·민요·민속놀이 부문에서 경연.
▶녹천 고광순 의병대장 순국 100주년 추모대제=오전 11시 담양군 창평 녹천 고광순 의병대장 기념관.
▶제 7회 김남주 문학제=오후 7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포엠콘서트·시화전 등 개최.
▶광신대 대학원 실용음악학과 제 1회 정기연주회=31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재즈 퀸텟이 '스페인' 등 칠코리아와 찰리 파커의 히트곡 선사. 퍼커션 앙상블의 'One & three drums' 연주 등.
▶일곡 동아리 발표회=31일(화) 오후 8시30분 일곡도서관 중앙홀.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 콘서트=31일(화)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합주 '방황', 영화음악 '천년학', '꽃의 동화', '메나리를 위한 피리 3중주' 연주, 아나이스 댄싱팀 공연.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졸업작품전=11월3일까지 조선대미술관.
▶김광표 개인전=31일까지 광주서구문화센터 갤러리.
▶조대조각동문(백학) 회원전=11월1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남창희전=11월1일까지 상계갤러리.
▶이영식 개인전=11월1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시화 공예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목도회전=31일까지 북구청갤러리.
▶사진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전=31일까지 광주시 향토문화회관 3층 오월문화관.
▶송봉채전=11월 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혼자보기 아까운 사진전=31일까지 일곡갤러리.

뉴스퀴즈

36. 1960~70년대 국내 프로레슬링계를 품기했던 '박치기왕'이 최근 별세했습니다. 지난 1957년 역대산체육관에 입문하며 레슬링을 시작한 이 사람은 호쾌한 박치기로 거구들을 쓰러트리며 전 국민을 흥분시켰던 인물입니다. 지난 1963년 세계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당시 최고의 인기와 전성기를 누리며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고희이 고희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김일 ②역도산 ③이왕표 ④안토니오 이노기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변환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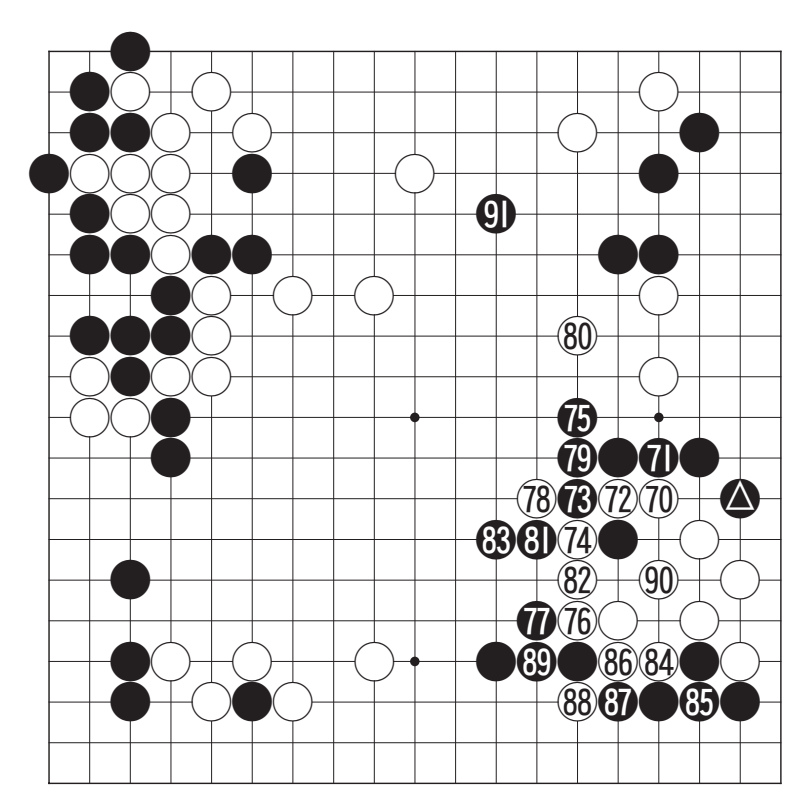
오늘의 유머

음악과 돈가스
음대에 다니는 여대생이 어떤 남자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마침 슈베르트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여대생은 자신이 음악을 전공하고 있음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남자에게 물었다.
"이 곡이 무슨 곡인 줄 아세요?"
그러자 남자가 자신있게 대답하길. "누굴 바보로 아시나요? 왜지고기 짬야요!"
뉴시 커피
뉴시를 좋아하는 커피가 어느 날 함께 뉴시를 갔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텐트 안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 지나도 남자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어쩔 입질도 하지 않나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어두워서 미끼가 보여야지."

비싼 건 안돼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아내와의 외식 자리에서 말했다.
"여보, 결혼기념일 선물로 뭘 갖고 싶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아내에게 남편이 재차 물었다.
"말해 봐, 옷? 새 차? 다이아몬드? 요트?"
아내가 대단히 병정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난, 이혼을 원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하는 말.
"뭐라고? 그렇게 비싼 건 안돼...!!!"
바로 그것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영자에게 친구가 물었다.
"신혼여행 재미가 어땠니?"
그러자 영자, 종이를 하나 꺼내며, 그 종이를 접을 수 있을 때까지 접어보라고 했다.
친구는 종이를 접을 수 있을 때까지 접다가 말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바로 그거야. 우리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



금연한 이유
건강이 좋지 않은 최씨는 병원에 자주 간다. 병원에 들 때마다 의사는 그에게 담배 끊기를 강력하게 권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가 담배를 끊었노라고 의사에게 말했다. 신동하다고 생각한 의사가 끊게 된 사연을 물었다.
"아! 끝내 두 살배기 아들이 암마 젖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젖을 먹지 않으니 아이를 끊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지역 바둑대회
살아있는 대마에 가일수 5보(70~91)
백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흑 박광주 5단 <포스코>
박광주 5단이 흑 ▲로 백 대마에 비수를 들이던 장면이다. 유흥주 5단은 백 70으로 나가 흑의 포위망을 뚫고 살 길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흑을 잔뜩 굴러주게 돼 흑이 바라는 '생불여사(生不如死)'의 환정일수도 있지만 82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하다.
박 5단이 75로 호구친 것은 실착, 이 수로는 79에 꼭 이어야 했다. 그랬으면 백이 80으로 도망가더라도 보다 더 깨끗하게 중앙을 봉쇄할 수 있었다. 유 5단은 76가지 대마를 응급처치하고 나서 이번에는 80으로 우변 백 두점마저 달아내고 본다. 백 대마가 살더라도 이 두점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옳은 판단이었으나 90으로 살아있는 대마에 가일수 한 것은 대실수였다. 이 대마는 잡으러 오더라도 '참고도'처럼 살아 있었다. 흑 91을 선제 당해서는 백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한승 LG배 4강 선착
조한승 9단이 30일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에서 중국의 천아오에 5단을 253수 만에 백 6집반으로 쥐고 4강에 진출했다. 이날 백을 잡은 조 9단은 초반 흐름에서 다소 고전했으나, 중반에 우하변 전투에서 백 다섯집을 잡은 데 이어 중앙에서 백 집모양을 키워가며 승리를 다했다.
LG배에서 제 7, 8, 9회 3회 연속 4강에 올랐지만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조 9단은 이날 승리로 다시 한번 세계대회 결승 진출을 노리게 됐다.
대만의 저우권선 9단은 중국의 씨에허 6단을 쥐고 4강에 합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1일(음 9월 10일 癸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764> 오하이오 니혼고 <764> 니하오 쫑구워 <482> 한자 이야기 <382>

That will be very helpful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
A: Do you have your company brochure with you?
B: I'm sorry, I don't think so. I'll mail it to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A: That will be very helpful.
B: I should have brought it with me.
A: 자네 부모님이 가지고 있나?
B: 미안하네,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맨 먼저 자네한테 우편으로 보내 줄게.
A: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
B: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좋았텐데.
have ~ with (you) : (자네가) 가지고 있다
mail : 우송하다.
- 영국에서는 post를 주로 사용한다.
- express mail (속달 우편), air mail (항공우편), registered mail(등기우편)
주어+ should have +P.P =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就職祝(しゅうしょくいわ)いにもらったの
취직 축하선물로 받은 거예요
A: あら、そのスカーフ、セリヌじゃないですか?
B: ええ、そうよ。就職祝(しゅうしょくいわ)いにもらったの。すてきでしょ。
A: なかなか、いい色ですね。よく似合(にあ)いますよ。
B: うれしいわ、ありがとう。實はこれ、「喉(のど)から手(て)が出(で)る'ほどほしかったものなの。
A: 어머, 그 스카프, '셀리누'제품 아닙니까?
B: 예, 그래요. 취직 축하선물로 받은 거예요. 멋지죠?
A: 상당히 색깔이 좋군요. 잘 어울립니다.
B: 좋아라! 고마워요. 실은 이것,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정도로 원했었던 거예요.
セリヌ: 프랑스의 가죽제품
じゃない: ~잖아
そうよ: 그래요
すてき: 멋있다
就職祝(しゅうしょくいわ)い: 취직이 결정되었을때의 축하 선물

不足时候
때가 아니다
A: 船期不好嗎?
B: 今渡渡(いまわた)る時(とき)は不足(ふそく)時候(じき).
A: 怎麼(どう)了(した)?
B: 渡(わた)る時(とき)は不足(ふそく)時候(じき).
A: 怎麼(どう)了(した)?
B: 渡(わた)る時(とき)は不足(ふそく)時候(じき).
A: 怎麼(どう)了(した)?
B: 渡(わた)る時(とき)は不足(ふそく)時候(じき).

碧瀾渡(벽란도)
푸를 벽, 물결란, 나무도
벽란도(碧瀾渡)는 황해도 예성강 하류에 있는 나무이다. 벽란도는 고려의 서울인 개경(開京)에 가깝고, 풍파와 물살이 세지 않은 천연의 항구였기 때문에 당시 많은 외국상인들이 오가며 교역을 하던 곳이다. 이들은 사신을 영송(迎送)하기 위하여 안산(岸山)에 세운 벽란정(碧瀾亭)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무역(貿易)은 사신(使臣)을 통한 공무역과 상인(商人)을 통한 사무역으로 이루어졌다. 송(宋)의 개봉(開封)에는 고려의 비단, 도자기, 종이, 먹, 부채 등이 명물로 꼽혀 벼슬아치와 부자들이 선망하는 물건이 되었으며, 이 물건들은 다시 송의 중개무역으로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이 동남아를 거쳐 직접 벽란도에 밀려들었다. 이들은 수은, 상아, 향료 등을 가져왔고, 벽란도와 개경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하였다. 아라비아의 비단 짜는 기술은 고려에서 배워갔다는 설도 있다. 벽란도에는 외국 배와 뱃대가 숲을 이루고, 개경은 외국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걸음으로 소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때 고려(高麗)라는 나라 이름이 중동과 유럽에 널리 알려져서 프레이아(Corea)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뒷날 코리아(Korea)로 굳어지게 되었다.